비뇨기과 전문의 정치영의

솔직, 대담한 性

의심으로 인해 생긴 '음경절단'

수련시절의 일이었다. 응급실에 급한 호출이 있어 가보니 바지가 피에 흠뻑 젖은 40대 중반의 환자와 비닐봉투에 뭔가를 담아 가져온 듯한 부인이 급하게 비뇨기과 의사를 찾고 있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 사건은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했다.

잘려진 부위 신선한 상태로 유지

택시운전을 하는 강현복(가명)씨는 직업특성상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탓에 귀가하는 시간이 불규칙했다. 맞벌이를 하는 아내도 나름대로 바빠, 둘은 얼굴보기가 무섭게 각자의 일에 쫓겨 서로를 돌보기가 힘들었다. 그러던 중 어떠한 연유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아내는 사사건건 남편의 행방을 추궁했고, 둘의 부부싸움은 갈수록 정도를 더해갔다. 나름대로 억울한 강현복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달래도 보고 윽박도 질러보았지만 의심이 극에 달한 아내를 해볼 도리는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던 어느 날, 지친 몸으로 퇴근한 강현복씨는 친구들과 신세한탄을 하며 술을 한잔 하게 되었고 새벽에 집에 돌아가자마자 또 다시 아내의 심한 추궁을 당하게 되었다.

언성이 높아지며 쌍소리가 오고가던 그 순간 참다못한 강현복씨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면도칼을 들어 눈 깜짝할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잘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든 아내는 황급히 밖에 나가 남편의 잘려진 성기를 주워 119를 통해 내원하게 된 것이다. 삽시간에 심벌을 잃어버린 강현복씨와 울며 매달리는 그의 아내를 지켜보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급한대로 가져온 강현복씨의 잘려나간 성기는 얼음으로 둘러싸인 봉투에 담겨져 다행히 상태가 양호했고, 면도칼에 의해 잘려서인지 절단면은 아주 깨끗하였다. 응급으로, 절단된 신경과 혈관, 해면체를 연결하는 미세수술을 시행하였고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퇴원하게 된 부부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우리 의료진에게 인사했고 두달쯤 흘러 외래를 통해 내원한 강현복씨는 발기도 예전과 똑같고 아무 이상이 없다며 무척 고마워했다. 우스꽝스러운 것은 수술을 하고나서 감각이 무뎌져서인지 예전의 심한 조루증세가 없어졌다는 것이었고, 오히려 잘된 것 같다고 멋쩍은 듯 '허허' 웃던 그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둘은 그 후 서로의 오해를 풀고 행복했으리라 생각된다.

'음경절단'은 극히 드문 경우로 손가락이나 발가락 절단과 같이 어떤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자해나 상해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한 절단사고가 발생 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잘려진 부위를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여 응급실까지 가져오는 것이다. 상태만 보존하면 얼마든지 접합해서 살릴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신속하게 후송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제초기에 의한 하지 쪽의 절단 사고나 산업현장에서의 손가락 절단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도 잘려진 부위를 최대한 빨리 수지접합 전문수술 병원으로 옮겨 소중한 신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테마필 피부비뇨기과 원장〉

뉴스퀴즈

53. 국내 4개 도시가 4대 국제 스포츠· 박람회 이벤트 유치에 나섰습니다.

평창은 2014년 동계올림픽, 대구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인천은 2014년 아시안 게임 유치를 신청해 최근 평창과 대구에 대한 현지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오는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신청한 이 도시가 오는 4월9일부터 13일까지 현지 실사를 받습니다.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① 여수 ② 광주 ③ 목포 ④ 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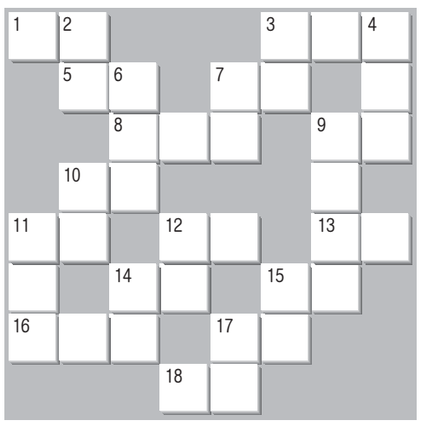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 240 >



〈함께 풀어봅시다 239회 정답〉

봉 쇄 / 부 정 확 / 취
빙 / 조 / 고 랭 지
선 수 금 / 부
전 / 동 아 줄
관 노 / 타
혼 / 보 / 부 기
이 상 / 수 습 / 스
제 산 제 / 드 럼

➔ 가로풀이

1.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의 유효 폭 밖의 가장자리 길. 위급한 차량이나 고장이 난 차량을 위한 길이다. 3.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제도.↔간선제. 5.적은 정도나 분량. 남아 있는 음식이 ~ 밖에 없다. 7.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의 다섯 가지 감각. 8. 총이나 활을 잘 쏘아 이름난 사람. 9.한 직선이 두 직선과 각각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날 때 두 직선의 안쪽에 생기는 각.↔외각. 10.책을 새로 간행함. 또는 그 책. 이번에 학교 도서관은 상당량 ~ 서적을 구입했다. 11.주로 은행 등 금융 기관에서 이자와 기한을 정하고 돈을 꾸어 주는 일. 또는 돌려 받기로 하고 어떤 물건을 남에게 빌려 주어 사용과 수익을 허락하는 일. 12.배가 닻을 내리고 머무름. 항구에 많은 배가 ~ 중이다. 13.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뒷면. ~ 협상. ~ 로비가 치열하다.→배후. 14.어떤 물건의 분량. ~ 공세. 설이 다가오자 떡의 주문 ~이 폭주했다. 15.단 한 군데로만 난 길. 또는 한 가지 방법이나 방향에만 전념하는 태도. 그는 성직자로 한평생 ~을 걸어왔다. 16.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인정해주는 증서. 그는 교사 ~을 갖고 있다. 17.대학에서 학생이 자신의 학과를 옮기는 일. 18.소리를 내거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입에 물리는 물건.

➔ 세로풀이

2.좋은 일이 있을 조짐. 3.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접했을 때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고 진상을 곧바로 느껴 앎. 또는 그런 감각. 4.사람이나 물건이 모두 각각. 성격이 ~인 사람들. 6.오늘이나 내일 사이. 그 일은 ~에 결판이 날 것이다. 7.구정물 9.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어지는 비탈진 길. 또는 기운이나 기세가 한창때를 지나 약해지는 상태. 차가 가파른 비탈길을 오른 후 다시 완만한 ~로 접어든다. 10.가톨릭에서 사제의 서품을 받은 성직자를 이르는 말. 부제의 위이고 주교의 아래. 11.야구에서 누상(壘上)에 나가 있는 주자를 대신해 주자가 된 사람. 보통 발이 빠르고 주루 플레이에 능한 사람이 한다. 12.일정하게 정하여진 분량. 그 장교는 취사병들에게 ~으로 배식할 것을 명령했다. 14.범죄의 증거가 되는 물건의 존재나 상태. 범행에 사용된 흉기,훔친 물건 등이다. 심증은 있는데 ~이 없다. 15.몸 외부의 상처나 내장 기관의 질병을 수술이나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치료하는 학문. 의학의 한 분야. 17.사람을 시켜 말을 전하거나 안부를 물음. 또는 전하는 말이나 안부. 급한 ~을 받고 달려왔소.

▲지난주 정답자
최다연·광주시 서구 풍암동
김우진·광주시 북구 운암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6일(음 1월 9일 辛卯)

子 36년생 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다. 48년생 주변에 시끄러운 문제가 다가오는 형상이다. 60년생 길사와 연결될 모습이다. 72년생 흉은 가고 길사가 도래 한다. 84년생 남·여 간에 이성에 빠질 수 있으니 정신을 차려야. 행운의 숫자 : 03, 04

丑 37년생 아는 도끼에 발등 찍힐 우려가 있다. 49년생 바람이 일 수도 있으니 중정하라. 61년생 자기생활에 만족을 얻고 바른 생활을 하라. 73년생 풍류에 어울려 허송세월을 할 수도. 85년생 원거리 여행은 삼가라. 행운의 숫자 : 12, 23

寅 38년생 형제, 배우자편에 불편사가 발생할 수도. 50년생 소사에 시비 망언 언쟁이 발생할 수 있다. 62년생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적인 징후가 보인다. 74년생 우연으로 길사와 연결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5, 15

卯 39년생 득보다 실이 많고 상부상조할 기회가 생기나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51년생 주변의 시기 질투 모함으로 손실우려가 있으니 적극 참여를 조심하라. 63년생 건강에 유념하라. 75년생 남의 말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06, 14

辰 40년생 문서가 새롭고 승진 영전 등 가내에 경사가 있다. 52년생 가까운 주변으로 손재 실물 소비가 있다. 64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에 신중 하라. 76년생 협조자는 업는 듯하고 요행을 바라지 말고 앞뒤를 살펴라. 행운의 숫자 : 07, 13

巳 41년생 소사의 언쟁이 부부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다. 53년생 모든 일 즐겁게 시작한다. 65년생 생기 있는 희망이 찾아오는 형상이다. 77년생 절대 욕심내지 말고 차분하게 자기를 뒤돌아 보고 모든 것은 점검하라. 행운의 숫자 : 08, 12

午 42년생 쇠락한 길목에서 피곤이 중해질까 두렵다. 54년생 큰 계획은 중단하고 실리를 찾아 몸으로 헌신하라. 66년생 희망찬 설계를 구상했으니 모든 일이 순행 하리라. 78년생 색정에 휘말릴 수 있으니 자재 하라. 행운의 숫자 : 09, 11

未 43년생 좋은 계획은 좋은 인연을 만드니. 55년생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67년생 일종의 사기에 엉킬 수 있으니 신중 하라. 79년생 주변의 협조자가 생기나 참여는 피하고 선길후흉으로 불편이 가중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9,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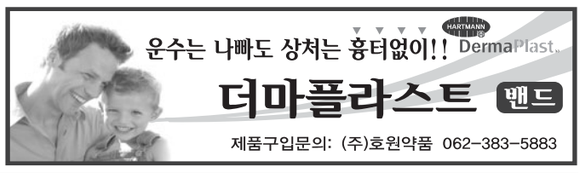
申 44년생 변동으로 부부간에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56년생 집안의 시끄러움이 밖으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 화해하라. 68년생 자신의 불편사가 주변에까지 미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80년생 생소한 길목에서 결정이 어렵다. 행운의 숫자 : 28,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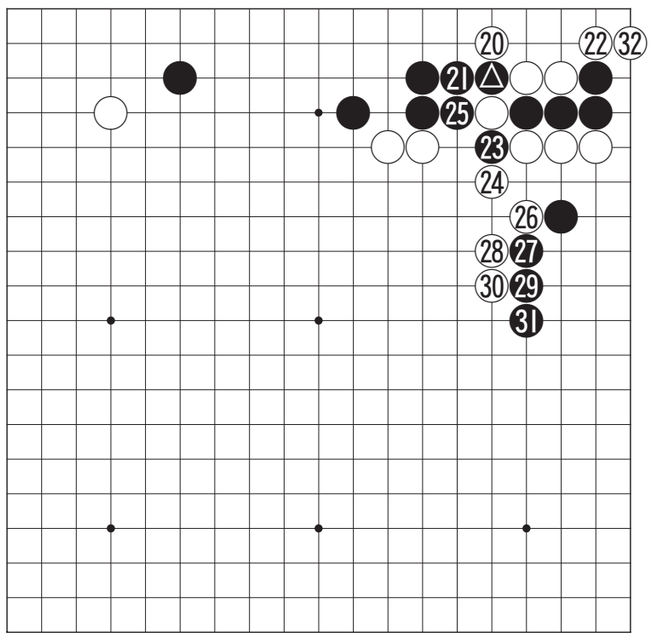
酉 45년생 흉이 복이 된다. 57년생 복이 흉이 될 수도 있으니 매사에 심사숙고하고 완벽한 결정을 내려야. 69년생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내용에 신경을 쓰라. 81년생 좋은 친구와 좀더 시간을 가져라. 행운의 숫자 : 32, 39

戌 46년생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58년생 잃었던 주인을 찾은 입장이다. 70년생 겉 다르고 속 다른 주변인물로 인해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도. 82년생 과욕은 금물이나 자기의 내실도 챙겨야 할 때. 행운의 숫자 : 33, 44

亥 47년생 새로운 문서와 재물이 신생된다. 59년생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71년생 협조할 사람이 결국은 괴롭혀 오는 형상으로 마가 따를 수도 있으니 신중 하라. 83년생 형제, 수하인으로 인해 불편사가 올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4, 45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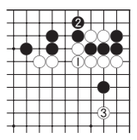


제35기 강원랜드배 명인전 예선1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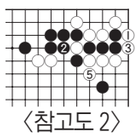
세월의 무게

제2보(20~32)

白 조훈현 9단 黑 조경호 초단



〈참고도 1〉



〈참고도 2〉

조훈현 9단은 전관왕을 세차례나 달성하고 응창기배를 비롯한 각종세계대회를 휩쓴 바 있는 한국이 낳은 불세출의 바둑황제다. 갓 입단한 새내기들로서는 대국할 기회를 갖는다는 자체가 대단한 영광이다.

지금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신진들의 거센 돌풍에 휘말려 예선전에 얼굴을 보이고 있지만 예전같으면 본선에나 진출해야 간신히 대국할 기회가 주어졌으니 금석지감이 새롭다.

흑 △로 끊어왔을 때 조훈현 9단은 백 20으로 몰고 22로 막아 귀를 살렸는데 이 수로는 '참고도1'의 백 1로 잇고 3으로 협공하는 것이 가장 간명한 수법이다. 그러나 변화를 좋아하는 조훈현에겐 내키는 그림이 아니다.

백 24도 '참고도2'의 5까지가 흔히 두어지는 그림이다. 오늘 조훈현은 새까만 후배를 만나 한 수 가르치는 기분인지 초반부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이세돌 맥심커피배 3연패 달성

이세돌 9단이 지난 24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8기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결승 3국에서 박정상 9단을 꺾고 2승1패를 기록,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이세돌 9단은 초반 승기를 빼앗겼으나 막판 박 9단의 잇단 실수를 틈타 우변에서 전세를 뒤집었다. 이 9단은 두터움을 이용해 중앙 백말을 공격하는 박 9단에 맞서 흑의 요석을 잡아내는 맞불작전으로 158수 끝에 항서를 받아냈다.

이 9단은 도전기가 아닌 선수권전으로 진행되는 이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48>

Let's get down to business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A:It's time we stopped messing around and **got down to business.**
B:I agree.
A:Do you have any ideas on how we could improve business?
B:Yes, I have several suggestions.

A: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사업얘기로 들어갑시다.**
B:그럽시다.
A: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가요?
B:네, 몇 가지 제안 사항이 있는데요.

mess around : 빈둥거리다 : 시간을 낭비하다
suggestion : 제안, 제의
Let's get down to business.
= Let's get started
= It's time to begin.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848>

なんでも

무엇이든지, 모두, 어떻든지, 여하튼

A:子供(こども)たちにお年玉(としだま)をねだられてるんだけどいくらぐらいやったらいいかな。
B:小學生(しょうがくせい)は1000円から5000円ぐらいが相場(そうば)だって。
A:そうか、**なんでも**一生懸命(いっしょうけんめい)やることを期待(きたい)して、5000円やることにしよう。

A:아이들이 세뱃돈을 달라고 조르고 있는데, 얼마정도 주면 될까?
B:초등학생은1000엔부터5000엔정도가 시세라서…
A:그래, **어떻든지** 열심히 하는 것을 기대하고 5000엔주는걸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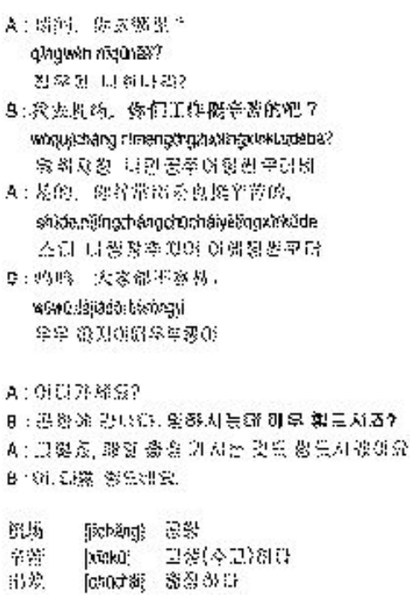
お年玉(としだま) : 세뱃돈
ねだる : 조르다, 치근거리다
一生懸命(いっしょうけんめい) : 열심히
しよう : ~하자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39>

你们工作挺辛苦的

일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466>

狼 狽 (낭 패)

이리 랑, 이리 패

낭패(狼狽)란 사이가 좋던 낭(狼)과 패(狽)가 사이가 틀어져 둘 다 곤경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뜻한다. 보통 '낭패를 보다', '낭패를 당한다'라고 한다.

낭(狼)이나 패(狽)나 모두 상상 속의 동물이름이다. 들개처럼 생겨 이리라고 불리지만, 낭은 태어나면서부터 뒷다리 두 개가 없거나 아주 짧은 반면, 패는 앞다리 두 개가 없거나 아주 짧다. 따라서 낭과 패는 따로 떨어져서는 걸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유지가 힘들다. 둘이 사이가 좋을 때는 낭이 앞서고 패가 낭의 등에 앞다리를 걸치고 걷기도 하고 사냥도 하면서 공생(共生)한다. 둘이 협조해야만 걸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인삼각(二人三脚)과 같다.

낭과 패는 성정(性情)도 다르다. 낭은 사납고 지혜롭지 못한 반면 패는 순하고 꾀가 뛰어나다. 둘이 먹이를 찾으러 갈 때는 낭은 패의 지시에 따라 먹잇감을 포획(捕獲)한다. 그래서 낭은 기꺼이 패를 등에 태우고 다닌다. 낭과 패는 사이좋게 잘 살다가도 서로 어긋나 틀어진다. 그러면 낭과 패는 당장 걸을 수 없어 사냥을 하지 못하므로 어쩔 수 없이 둘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낭패(狼狽)이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